

# 금까마귀 하늘 끝까지 날아 미륵님 오신 소식 전하네

## 50 세속을 떠난 세속 속리산 범주사(하)



범주사 부도밭의 부도와 비들.

수정교를 건너는 동안 눈동자는 돌담 너머 상반신만 보이는 청동미륵대불에 고정됩니다. 미륵대불은 범주사의 상징입니다. 8세기 중엽 진표 율사(眞表律師 생몰미상)가 범주사를 중창한 사상적 배경이 미륵신앙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진표율사는 지극한 기도 끝에 미륵과 지장보살을 친견하고 교법을 전수 받았으며 금산사와 범주사를 차례로 중건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미륵신앙의 대표적인 도량은 금산사와 범주사입니다.

굳이 절의 사상적 배경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속리산 하면 범주사, 범주사 하면 미륵대불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높이 8m의 기단 위에 25m의 키, 몸무게 160톤의 거대한 미륵대불은 범주사를 다녀가는 사람들의 가슴 깊이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불상의 크기가 웅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륵부처님이 그 앞에 선 중생의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겠다는 무언의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건너 담장 밖에서 미륵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고 왼쪽 추대암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보물 제216호 마애여래상(磨崖如來倚像) 앞을 지나면 부도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마애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입상이나 좌상인데 이 부처님은 의자에 걸터앉은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의자가 아니라 연꽃입니다. 잎이 삐죽삐죽한 커다란 연꽃을 의자삼아 앉아 계시는 부처님, 학자들은 이 마애의상 역시 미륵부처님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애의상에서 아래로 30미터쯤 내려가 커다란 화강암이 절벽을 이룬 양지바른 곳이 부도밭입니다. 앞에는 석상(石霜 1872-1947) 스님의 부도와 금오(金烏 1896-1968) 스님의 부도가 머리에 눈을 덮어 쓴 채 서 있고 뒤에는 탐비 4기가 서 있습니다. 맨 오른쪽 금오 스님의 부도 뒤에 서 있는 것이 금오대종사부도이고 이어서 진하당대선사부도와 탄옹당대사비, 석상당탑비가 서 있습니다.

탐비를 살펴보니 진하당(震河 1861-1925) 대선사와 탄옹당(坦應 생몰미상)의 비는 1927년 같은 해에 세워졌습니다. 그 때 부도를 조성했는데 잃어버린 것인지 비만 세웠는지 모르지만 부도와 짝하여 서

있을 때 그 가치가 온전한 것이 탐비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납니다. 탄옹당의 비문을 쓴 분은 석상당 신수(信首) 스님이요 진하당의 비문은 퇴경당 권상으로 스님이 지었습니다.

유식학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던 호경기환(湖鏡基煥) 스님이 찬한 석상당탑비문은 1949년에 세워졌습니다. 본문에 단 하나의 한자도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만 지어진 비문이 이채롭습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석상 스님은 19세에 금강산 신계사에서 진하당의 제자가 되어 경을 배우고 잠선일로에 매진했습니다. 석상 스님은 범주사 주지를 맡아 김수곤 처사와 미륵대불을 조성할 것을 발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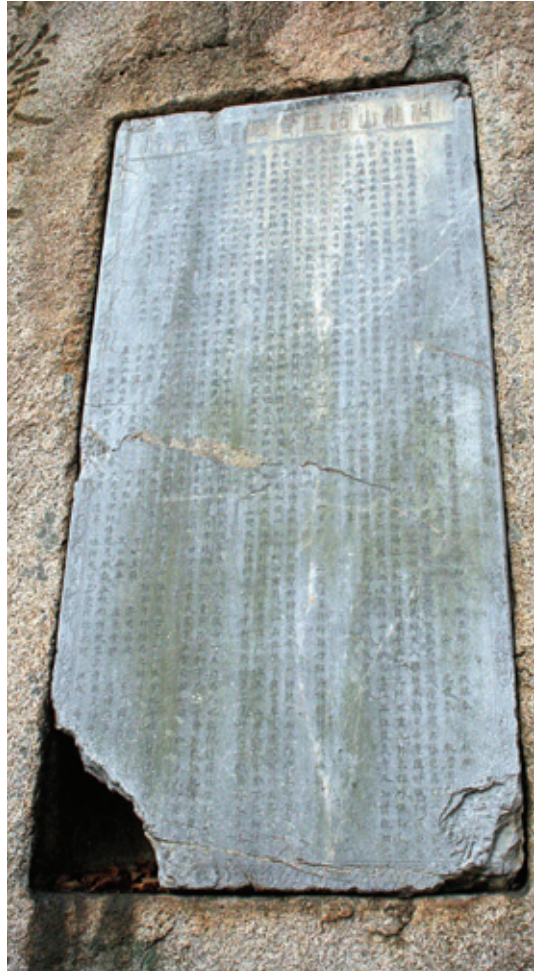
범주사에는 진표 율사가 조성했다는 미륵장륙상이 용화보전에 모셔져 있었다고 전합니다. 용화전은 현재 청동미륵대불이 모셔진 위치에 있었고 그 안의 미륵장륙상은 당연히 범주사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륙상은 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해 주조한 당백전(當百錢)의 재료로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상을 녹여 동전을 만들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1939년 석상 스님이 다시 미륵불의 조성 원력을 세웠지만 일이 순조롭지 않아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력만 남아 있었기에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의 시주에 힘입어 시멘트로 미륵불상이 조성됐고 세월의 흐름에 불쌍스럽게 변한 시멘트 불상은 1990년 당시 주지 월탄 스님의 원력으로 현재의 청동대불로 다시 모셔졌습니다.

### 깨달음이 불교의 처음과 끝 참된 정화는 마음의 때 씻기

석상 스님의 부도 '대종사석상지탑'은 사각의 기단석 위에 다시 사각의 받침돌을 쌓고 그 위에 둥그스름한 몸돌을 얹은 다음 팔각의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금오 스님의 부도는 사각의 기단과 받침돌 위에 팔각의 기단석이 연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역시 둥그스름한 몸돌은 원만한 우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붕돌이 생략되고 곧바로 보주를 얹어 팔각원당형과 석조형용 고루 받아들인 형태입니다.

부도의 뒤에 갖머리를 쓰고 서 있는 비의 앞면에는 굵직하고 활달자재한 필체로 '금오대선사부도비'라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을 지은 탄허 스님이 빗돌의 글씨도 썼습니다. 금오 스님은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자로 추앙받고 있는 경허(鏡虛 1849-1912) 스님의 법을 이은 만공(滿空 1871-1946)의 법제자 보월(寶月 1884-1924)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법맥은 경허-만공-보월-금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스승인 보월 스님이 40세의 이른 나이에 입적했으므로 만공 스님에게 직접 전법계를 받았습니.

만공 스님은 제자 보월 스님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래서 불가(佛家)에서는 드물게 제자를 대신해 '제



고려 중기의 고승 자정미수 스님의 빗돌.

자의 제자'인 금오 스님과 동산(東山慧日 1913~2009) 스님에게 전법계를 내렸습니다. 비석글의 중간중간에서 만공 스님이 금오 스님에게 내린 전전법계를 발견합니다.

덕승산맥하(德崇山脈下) 금부무문인(金付無文印) 보월하계수(寶月下桂樹) 금오철천비(金烏徹天飛) 덕승 산맥 아래 무니 없는 도장 지금 전하노라. 보월(寶月)은 계수나무 아래로 비추고 금오(金烏)는 하늘 끝까지 날오네.

금오 스님은 오직 참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이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자 월산(月山) 스님에게 늘 "참다운 수행자란 첫째도 참선, 둘째도 참선이며, 셋째도 참선이다. 그러므로 오직 참선수행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오 스님은 국운이 쇠퇴하는 시절에 태어나 수행의 길로 들어서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수행의 인연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가풍을 온전히 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면면이 이어져 온 한국의 선 수행 전통을 말살시키려는 일제에 대항해 여러 차례의 참선 수행 결사를 주도하고 해방 후에는 절집에 뿌리내린 일제의 잔재를 치우내는 '정화불사'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불교정화운동을 비구승과 대처승의 세력싸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인전 뒤뜰에 모셔진 세존사리탑.

그런 사람들이 금오스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화란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의 불량을 때려 버리는 것이 정화요, 몸의 일체비행을 고치는 것이 정화이다." 보기에 다소 쓸쓸한 느낌을 주는 범주사 부도밭이지만, 알고 보면 근현대 한국 선불교 역사의 큰 산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어디 산뼉이겠습니까? 금오스님의 생애는 한국선불교의 큰 물결로 일렁거리고 있습니다.

### 고려중기 미수 스님 '국존' 칭호 커다란 바위에 빗돌 넣어 보전

청동미륵대불이 서 계시는 뒤쪽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능인전(能仁殿) 구역입니다. 조선 인조 2년(1624) 백암 대사가 중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능인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전각입니다. 그리고 그 뒤뜰에 세존사리탑(崇佛유형문화재 제16호)이 있습니다. 높이 340cm의 이 사리탑은 고려 공민왕 11년(1362)에 조성되었습니다. 탑 옆에 조선 효종원년(1650)에 세운 비가 있는데, 흥건전을 격파한 후 공민왕은 그 공덕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했으며 이후 범주사를 찾은 공민왕



금오대선선사 부도.

이 통도사의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이곳에 봉안하라고 하명해 사리탑을 세워 모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능인전 옆의 언덕길을 올라 커다란 바위 앞에 섭니다. 이 큰 바위의 몸통 중간에 빗돌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발상입니다. 큰스님의 비를 새긴 직사각형의 빗돌을 커다란 바위의 몸통에 끼워 넣었으니 말입니다. 비의 주인은 고려 중기의 고승 자정미수(慈淨彌授 1240~1327) 스님입니다.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13세에 출가한 스님은 29세에 삼중대사(三重大師)가 될 정도로 경론에 해박했는데 특히 유식학에 달통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범주사에 머물며 여러 경전을 편찬 간행해 유통시켰습니다.

왕의 지극한 귀의와 존경을 받았던 미수 스님의 비 이름은 '고려국속리산범주사자정국존비'입니다. 국존으로 호칭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대의 백성과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큰 스승이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부도 역시 웅장했을 것인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비만 전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 탐비를 커다란 바위에 끼워 넣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빗돌을 바위에 끼워 넣은 지혜에 감동합니다.



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 OK!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 사이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나 잠순한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덩과 함께 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햇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주)은 철,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특 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햇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로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햇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 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을 방사되는 B.C.P.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에 일반연상 발열체 반신욕자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햇B.C.P.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음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정액권 | 값 5,000원

###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욱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